

만남

2019년 8월
통권 17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연민과 사랑-----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4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도록-----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인 가정

가정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더욱 ‘참된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연민과 사랑

연민과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봅시다. 연민은 서로를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민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랑이 식은 자리를 연민으로 메우면, 긴 앞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연애를 오래했으면 서로 성격을 잘 알 터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은 어쩌면 사랑이 사그라진 자리에 연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사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대체로 약 3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슴 설레는 순간, 불같은 순간 30개월이 지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연장시켜나가기 위한 불굴의 노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질 무렵,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과 결핍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느낄 때, 염증을 느끼고 좌절을 느낄 때, 찾아갈 때마다 반겨주시는, 불멸의 연인, 영원한 연인이신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사랑의 유효기간을 더 연장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성생활이요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연민의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사랑 안에도 불사불멸의 사랑, 절대적인 하느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사랑에 대한 충실성, 사랑에 대한 지속성, 사랑에 대한 신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그릇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순수하고 밝은 것,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어놓는 행위야말로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빛나고 품위 있는 삶, 완성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대해 낙담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생적으로 지닌 결핍이나 나약함, 한계와 죄까지도 당신 뜨거운 사랑으로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연민을 우리도 배워가야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49-5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저희 방패이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모임을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열정이 생겼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웬지 우리가 알고 바라는 그분의 모습과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시고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의 상징을 살펴보기 위해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용한 ‘불’이란 단어를 보면 성령과 연결되기도 하고, 단순한 불이나 표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자주 심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불과 연결된 분열의 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과 관련해 루카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는 미카 예언서 7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느님 백성의 불의와 타락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는 문맥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정화를 위한 징벌인 것입니다.

이것을 루카복음에 적용해 보면 하느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 전에 정화하는 심판이 와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정화의 불을 지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화와 재건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화와 회개를 위한 노력과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들과 그분을 반대하는 이들로 갈라집니다. 루카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 앞에서 독한 앙심을 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분의 양 떼와 벗들이 있습니다. 이 분열은 심지어 깊은 유대의 끈으로 묶여 있는 가족관계에까지 파고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외적인 원인만을 따지면서 불평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위한 하느님의 초대로 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내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시키며 대속의 사랑으로 승화할 줄 아는 눈, 곧 신앙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소공동체와 단체 - 상호보완적 관계

☞ 소공동체가 하기 어려운 일은 단체에서 맡습니다

소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레지오의 고유한 신심 활동, 청년활동, 노동사목, 여성연합회, 주일학교 운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단체나 연합회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단체 모임들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소공동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본당 단체들은 소공동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합니다.

☞ 단체에서 하던 일 중 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공동체가 맡습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이나 병자 방문 같은 사목활동을 단체에 소속된 몇몇 사람들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동네의 환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자주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방문합니다. 세례 때에 받은 평신도 사도직으로 이런 활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방문하거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꼭 어떤 단체에 소속될 필요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소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 소공동체와 단체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본당 단체들과 소공동체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과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단체들마다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활성화 하는 데 모두가 협력하되 그들의 활동을 소공동체가 담당하지 못하는 범위로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체 구성원도 지역 소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큰 단체에 소속된 단체 구성원일지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소공동체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 됩니다. 어느 구역에서든지 세례 받은 신자들은 모두가 소공동체 구성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큰 단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소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2. 환대와 연대

의학의 기원과 발전이 그러하듯이, 의사와 병원의 시작 역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병원, 즉 환자를 받아들여서 회복할 때까지 보살펴주는 종합병원은 16세기에 와서야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의료기관을 호스피탈(hospital)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가톨릭교회, 특별히 수도회가 실천해온 ‘환대(hospitality)’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많은 수도회들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 대한 환대의 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자리 잡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빵을 나누는가 하면, 수도원의 몇 개의 방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 언제나 남겨두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가 하면, 병자들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원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병자들을 환대(hospitality)하던 수도원의 시설이 종합병원(hospital)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수도자들은 나병이나 페스트 같은 무서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병자들과 동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 때문에 “저주받은 섬”이라고 불리던 몰로카이에 기꺼이 들어가서 나병환자들의 삶에 동반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병으로 고통 받았지만 몰로카이 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실천해온 환대란 단순히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섭니다. 즉,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환대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빵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공간을 비워 내어주고, 시설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아픈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연민에서 시작하여, 가난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환대로,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 동반하고 그들의 처지를 변호하는 연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사랑의 최고 형태는 약자와 맺는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3. 에너지 소비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소비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비사회는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 우리는 인류가 문명 생활을 한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하거나 더욱 인간답게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욱 물질에 얽매어 살고 있고, 자연과 환경은 쉽게 사용하고 버려진 쓰레기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사회는 대량 생산으로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들을 소비시켜야만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광고와 마케팅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계속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각 개인들이야 자신들의 선택과 소비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비자의 수요는 광고와 마케팅 기술이 만들어낸 욕구와 욕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비 행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우리 사회의 기술과 경제, 에너지 정책과 경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으로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비 행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수요 역시 우리 자신들의 주체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생산자와 시장의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핵 발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핵 발전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는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선전되어 왔고, 핵 발전 산업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정보나 논의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태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는 직접적으로 핵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기술과 시장의 논리가 결합되어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우리의 노력은 개인적 영역에서 잘못된 소비 습관에 맞서 싸우는 것뿐 아니라, 더 큰 영역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통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통제 역시 필요합니다.

24. 영성 소비주의

주일 미사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계명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부활과 성탄 전의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수도 줄어들었고, 환자와 가난한 이를 방문하거나 극기와 절제의 생활을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하는 사람들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야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신앙과 사랑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신자들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적지 않은 의인들 덕에 아직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영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개인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신앙인들의 태도를 ‘영성 소비주의’(<복음의 기쁨> 89항)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사생활의 안락함 속으로 또는 가까운 친구들의 좁은 울타리 속으로 달아나며 복음의 현실적인 사회적 측면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복음은 과감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나라고, 곧 그들의 육체적 현존과 만나라고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과 호소를 또 잘 번져 나가는 그들의 기쁨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복음의 기쁨> 88항)

복음의 요청과 초대에 응하기 보다는 자기 사생활의 안락함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도와 영성을 방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성 소비주의’인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과 영성 생활을 자신의 ‘웰빙’을 위한 것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번영의 신학’(<복음의 기쁨> 90항)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얼핏 보기에는 교회의 활력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환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욕망과 환상이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도록(작가 미상)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날에
 진정으로 섬기며 베푸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소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의 눈물을 닦는 곳에, 세상을 밝히는 곳에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또한 지식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밤을 세워가며 노력한 공부가
 오직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배워서 남을 돕고 섬기는 지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힘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약한 사람을 억누르며 억울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보여주는 힘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섬기며 베푸는 기회로 살게 하소서.

질문

대모님과 관계 때문에 고민입니다. 대모님은 아주 조용하시고 늘 성당에서 기도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셔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대모님으로 모셨는데, 날이 갈수록 대모님과 사사건건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놀기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영화와 연극이 있으면 보러 다닙니다. 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세속적이라고 일침을 가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찢려서 온종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대모님은 다시 저에게 마귀가 들려서 그렇다고 하셔서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심란하다고 하면 마귀가 들렸다고 하십니다. 정말 마귀가 들린 건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신앙적인 면이건 일상적인 면에서건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가 그리고 자신도 편안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자신은 불편하다면 ‘병적인 콤플렉스’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성격 장애’,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한다면 ‘신경증 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모님이 자매님의 삶을 세속적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치게 영적으로 민감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신경증 증세’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는 데 지나친 민감성을 보입니다. 기도와 성당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선 세속적이라고 단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행사할 때도 늘 못마땅하게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확신할지 모르나 자칫 세상의 모든 일을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상태가 분열증 초기일지도 모르니 조심할 일입니다.

또한, 이런 성향의 분들은 ‘종교적 자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방주 콤플렉스’라는 증상인데 자신이 경험한 세상, 자신이 깨달은 것이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얼핏 보기에 신념과 신앙심이

대단한 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에 도취하고 자기가 만든 신앙에 빠진 심리적 우상숭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의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하느님을 섬기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이 강조한 바 있지만, 인간 삶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만 빠져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영적인 세계에만 몰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이 늘 하느님만 향할 수는 없고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을 늘 견고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반듯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면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욕망에 충실하고 약간은 흐트러짐이 있을 때 가장 사람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흔히 지진에 대비해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되지요. 지진이 심한 곳에서는 건물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짓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진 설계는 약간 흔들리게 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허술함이나 흔들림이 있어야 오히려 신앙인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가끔 빈틈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하면 숨이 막힐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 같아서 말이지요. 완전함을 지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삶’이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 성인들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 오티리엔 수도원(김원철님)

성 오티리엔 수도원은 독일 바이에른주 주도인 뮌헨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달려야 닿는 곳입니다. ‘서방 수도회의 아버지’ 성 베네딕토의 수도 전통을 따르는 수도원입니다. 10년 전까지 수도원에 물레방아가 있었을 만큼 독일 농촌의 목가적 분위기가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100여 년 전 이곳 수사님들이 한국에 건너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세운 터라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수도원 김나지움 교사인 블로머 마우로 수사님은 “우리가 선교박물관에 있던 검재 정선 화첩을 몇 년 전 한국에 반환했다. 나도 지난 3년간 두 번이나 한국에 다녀왔다.”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성 베네딕도회는 서방교회 수도원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6세기에 저술한 수도 규칙서(Regula Benedicti)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표 규칙서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수도생활 형태를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규칙서를 빼고는 수도원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정신을 전해주는 일화 한 토막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몬테카시노(이탈리아)로 자리를 옮겨 새 수도원을 짓고 있을 때, 마르티노라는 은수자가 근처 외딴 동굴 벽에 몸을 사슬로 묶고 고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대가 진실로 하느님의 종이라면 쇠사슬로 자신을 묶지 말고 그리스도로 묶으시오.”(교황 그레고리오의 <대화집>에서)

그리스도께 묶이는 삶, 이를 위해 수도승들은 일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와 노동 속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주(定住)해야 생활의 중심이 잡히고, 이웃 형제자매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련자들은 ‘정주 안에서 항구함’을 가장 먼저 서약합니다.

사람들은 수도 규칙서라고 하면 제약, 통제, 억압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릇된 편견입니다. 고전(古傳)의 가치가 시대를 초월하는 호소력에 있듯이, 베네딕토 규칙서는 중세시대뿐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변함없는 영적

울림을 줍니다. 중세시대에도 통할 법한 규칙이라면 왜 21세기 사람들이 1500년 전 영성을 찾을까요.

한 예로 손으로 하는 노동을 중시하는 베네딕토회는 서방세계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은 경제생활 단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지식과 문화의 창고였습니다. 실제로 수도승들은 농업·교육·예술 등 다방면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훗날 시민사회 형성의 힘이 되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를 “겨자씨(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서양문명이라는 큰 나무가 자랐다.”는 말로 함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중세 수도원 하면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음습한 분위기부터 연상하기도 합니다.

마우로 수사님은 ‘기도하며 일하라.’는 수도원 모토에 대해 “우리의 노동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일이 99% 진척됐더라도 기도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스승의 가르침대로 더 중요한 하느님의 일을 하러 미련 없이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일중독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 그리고 활동에 몰두한 나머지 일과 기도의 순서가 뒤바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일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 오티리엔 수도원은 성 베네딕토회 수도 전통에 ‘선교’를 추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독일 보이론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암라인 신부님은 1884년 교회의 선교 요청에 따라 ‘안으로는 수도승, 밖으로는 선교사’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곳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어 1909년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한국 베네딕토회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선교 역사는 선교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동물박제와 사냥도구부터 한국의 옛 교리서와 1936년 연길에서 발행된 잡지 <가톨릭 소년> 창간호까지 진귀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승들 얼굴은 수도원 입구 가로수길처럼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는 비움과 침묵, 기도가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비움과 침묵, 그리고 기도….’ 가로수길을 지나 시끌벅적한 바깥세상으로 질주하는 버스 안에서 자꾸 되뇌게 됩니다.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디아	손 수 민			현(김)영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18일	헬레나	이 미 용
		김 치 수			백(이)영자
	도미니카	배 성 우			윤 혜 진
10일	라우렌시오	심(김)선옥	23일	로사	최 종 금
		우 동 천		필립	이 중 지
		엄 현 석			해준
11일	수산나	노 정 자			Heifler
		서 수 진	24일	바르톨로메오	남궁춘배
15일	마리아	정 마리아			
		김 춘 옥	27일	모니카	손 수 희
18일	클라우디아	김(이)영희			윤 예 진
		이 지 연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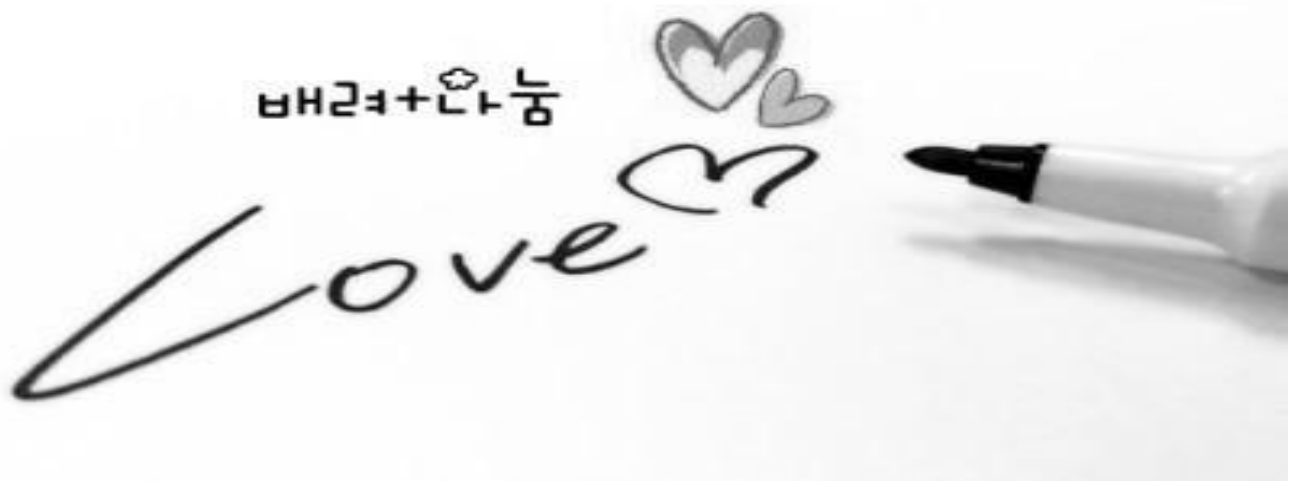
1일	마리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라라	전영웅(H)
10일	테레사	고희지(B)		헬레나	박선자(H) 설윤자(O)
11일	수산나	강민정(B)	22일	셀리나	김신자(H) 김세린(H)
	알레나	배 알레나(B)	23일	로사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마리 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니카	임소영(O)
15일	스텔라 마리 스텔라	부지우(O) 강주희(H) 김세담(H)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 8월 성가번호 ❖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4일	37	423	168	2
11일	459	512	178	411
18일	329	433	174	478
25일	찬 양 미 사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청년회
11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18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1구역
25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김진호(프란치스코)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2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주일헌금	224,63	268,42	339,12	235,64
헌납금	150		210	50
구작입금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550.00 * 헌납금 합계 960.00			

❖ 자진헌납금 ❖

2019년 6월 24일 - 2019년 7월 21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헌금납부 :

김계희, 황영선, 우동천, 서세원, 김민옥, 진윤희, 신옥희,
 김효정, 김영애, 이정수, 최장용, 윤석순, 강신행, 이종하,
 배성우, 김기연, 오옥수, 심동근, 이현목, 최순남, 손수희,
 문수진 Sebastian, 육종인, 이정은, 김경미, 김건, 이수웅,
 이공종, 강순행, 방은일, 김경렬,

◆ 구작입금 :

춘옥 Zerbock, 중지 Lee-Rother, 홍경영, 김진호, 김부남,
 김원자, 이석우, 송문규, 정정숙, 김정숙 Eilinghoff, 최성자,
 최현봉, 최화영, 이정훈, 이성원, 이명원, 이상봉, 박준병,
 허두옥, 김치수, 이영희 Eggerstedt, 허길조, 김동수, 김유석,
 김대현, 김형웅, 강일남, 이경규, 이영원, 백정선, 남궁춘배,
 권지연 Rabe,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8월에는 저희 성당의 가장 큰 행사인 제46회 친선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협조하고 봉사하여 더 없이 풍요로운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일요일 13시에는 만남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가 있고,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3. 8월 소공동체 모임에 대해서는 각 소공동체 별로 모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4. 8월 15일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19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5. 8월 22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6. 청년 창세기 연수에 한혜원(소화데레사) 자매님, 그리고 하노버 공동체에서 최이다(이다) 자매님이 참여합니다. 성경을 맛 들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7. 8월 24일 토요일 9시부터 제46회 함부르크 한인 친선 배구대회가 함부르크 시립공원(Hamburger Stadtpark)에서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대회장님이신 배성우(도미니코) 남성부회장님에게 문의를 해주십시오.
8. 8월 29일(수)부터 9월 1일(토)까지 유럽 성령묵상회가 카르디날 스테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7월 미사는 7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하였습니다.
3. 8월 미사는 8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4. 7월 16일 박샘솔(체칠리아) 자매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오래 미사 때 미사반주 봉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에서도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길 기원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7월 공동체 미사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하였습니다.
4.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봉헌합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7월 오스나브뤼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7월 13일(토)에 최한우(바오로), 김혜경(아네스) 가정에서 가정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8월 미사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봉헌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록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민음의 샘 Cu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3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육종인(베로니카)	
			총 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준병(바오로)	
			부회장	강새벽(에스텔)	
			총무	한승종(스테파노)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8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성 알폰스 마리아 데 리구오리 기념일		
2	금			
3	토			브레멘 공동체
4	일	연중 제18주일	사목월례회	예비신자 교리
5	월			
6	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믿음의 샘 뿌리아	
7	수			
8	목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입추		
9	금			
10	토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오스나브뤼크
11	일	연중 제19주일, 말복		
12	월			
13	화			
14	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15	목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16	금			
17	토			하노버 공동체
18	일	연중 제20주일		
19	월			
20	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기념일		
21	수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22	목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3	금	처서		
24	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제45회 친선 배구 대회 (Stadtpark)	
25	일	연중 제21주일	찬양미사	
26	월			
27	화	성녀 모니카 기념일		
28	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	유럽 성령묵상회 (카르디날 술테 하우스, Bergische Gladbach)	
29	목	성 요한 세례자 수난 기념일		
30	금			
31	토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